

##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특성과 고용창출간의 관련성 탐색

### Explori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Job Creation

윤 현 중\*

서울사이버대학교\*

Hyunjoong Yoon\*

Seoul Cyber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특성과 고용창출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기업가적인 특성들이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특성과 고용창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지향성과 고용창출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기업가적 지향성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 I. 서론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혁신을 창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경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이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고용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론 창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이 창설되지만 신생조직의 불리함으로 인해 신생조직들은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려는 접근은 일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논의가 제한되었던 고용의 문제를 중소기업의 맥락에 적용해 보고자 하며,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이 설립된 이후의 고용증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는 기업 수준에 형성된 기업가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에 형성된 기업가적 지향성이 어떻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가적 지향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혁신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중소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벤처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게 형성된 중소기업에서 고용창출이 더욱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주요 동인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2.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두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첫 번째 논의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국가의 전반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창업활동이 지역의 성장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이윤재, 2009). 많은 연구들에서 창업이 지역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동주·이윤보·김중운(2011)의 연구는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파급 효과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록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만 고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창업가나 그 가족들이 생산을 위해 비정규직을 단기간 고용할 뿐 보다 근본적인 고용창출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모든 연구들에서 창업과 고용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지지되고 있다(Audretsch & Keilbauch, 2004).

비록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적인 특성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며, 조직에 형성된 기업가정신인 기업가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2 기업가적 지향성과 고용창출간의 관련성

다양한 기업가적 특성들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기업가적 특성들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시장기회에 직면한 기업이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으로, 이러한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기업

은 보다 혁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성장이 빠를 것이고 고용창출 수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기업가적 지향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중소기업의 고용변화의 순증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가설 1: 혁신성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규모가 증가하는 정도가 클 것이다.
- 가설 2: 진취성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규모가 증가하는 정도가 클 것이다.
- 가설 3: 위험감수성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규모가 증가하는 정도가 클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한국 벤처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8년 자료이다. 2008년에 수행된 이 조사에는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실태 및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용창출은 인력규모의 증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에는 2009년 6월과 2009년 12월말까지 총원할 것으로 계획된 정규직, 비정규직 신규 종업원 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9년도 전체 종업원 수를 통제하였다.

표 1. 기업가적 지향성과 고용창출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차원	설문 항목	Cronbach's α	기초통계량	
			평균	편차
고용증가	다음에 총원할 예상 인력의 수		17.24	30.25
진취성	신제품, 새로운 관리기법, 신공정기술 등을 업계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69	0.36	0.66
	매사에 경쟁사보다 먼저 액션을 취하고 경쟁사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액션을 취한다.			
혁신성	신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경쟁업체보다 앞서기' 방식을 취한다.	.75	0.36	0.72
	지난 3년간을 뒤돌아 볼 때, 제품 및 서비스라인상의 변화혁신이 매우 크게 일어났다.			
위험감수성	R&D, 기술적 우위와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69	0.34	0.70
	지난 3년간을 뒤돌아 볼 때, 매우 많은 수의 제품 및 서비스라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리스크가 높더라도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가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잠재적 기회 탐색을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이다.			
	사업 환경의 특성상 과감하고 투박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책이라고 믿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vin & Slevin(1989)의 설문 문항들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기업가적 지향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설문 문항인 Covin & Slevin(1989)의 아홉 가

지 설문 문항이 번안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측정된 척도 자체는 공인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아홉가지 설문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에는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한 본 연구는 일반최소자승(OLS, 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위의 가설을 검토하였다.

### Ⅳ. 분석결과 및 결론

#### 4.1 분석결과

표 2. 기업가적 지향성과 고용창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항	1.03 ***	1.12 ***	1.00 ***	0.69 ***
	0.13	0.13	0.13	0.15
조직연령	-0.21 ***	-0.20 ***	-0.19 ***	-0.20 ***
	0.03	0.03	0.03	0.03
조직규모	0.42 ***	0.42 ***	0.43 ***	0.42 ***
	0.02	0.02	0.02	0.02
성장단계	-0.27 ***	-0.23 ***	-0.21 ***	-0.24 ***
	0.08	0.08	0.08	0.08
혁신성	0.22 ***			0.11 **
	0.03			0.04
진취성		0.18 ***		0.06 +
		0.03		0.04
위험감수성			0.21 ***	0.14 ***
			0.03	0.03
F value	95.33 ***	93.03 ***	96.47 ***	96.47 ***
R <sup>2</sup>	0.17	0.17	0.17	0.17

N=1,857, + p<.10, \* p<.05, \*\* p<.01, \*\*\* p<.001

#### 4.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추후 논의하겠다.

### ■ 참고 문헌 ■

- [1] 윤현중 · 이경목 · 이춘우, “기업가적 지향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시장 동태성과 제휴 다양성의 조절효과 연구”, 기업가정신과벤처연구, 제15권, 제2호, pp.23-44, 2012.
- [2] 이동주 · 이윤보 · 김종운,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2호, pp.73-92, 2011.
- [3] 이윤재, “기업가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2호, pp.73-92, 2009.
- [4] Audretsch, D., and Keilbauch, M.,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growth :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14, pp. 605-616, 2004.
- [5] Covin, J. G., and Slevin, D. P.,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0, pp. 75-87, 1989.